

# 정보사회와 직장인의 과제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경영학박사

## 1. 정보사회의 현상과 특징

농업사회와 산업화사회를 거쳐 바야흐로 지금은 정보사회로 접어들었다. 오늘날은 단순노동이 아닌 지식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로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21세기 변화의 거대한 물결로 인해 20세기 산업화시대를 풍미했던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빠른 속도로 공간과 시간 등이 기존사회와는 판이하게 달라서 새시대에 맞게끔 모든 경제주체에게 재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날로그시대의 종결과 디지털시대의 전개, 산업화시대의 종결과 정보시대의 전개는 우리들과 기업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항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화 및 세계화의 흐름이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가 없다. 정보기술이 추진하는 변화의 흐름은 다른 한쪽에서는 정보기술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그와 같은 차원의

새로운 산업 및 직업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이든 조직이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염려와 우려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다. 종전의 산업화시대가 개막되던 시대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두려움을 가졌다.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라는 새로운 발명품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시대였다. 변화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광범위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단체협약에서 개별계약으로, 고정급에서 성과급으로, 연공제에서 연봉제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불과 몇 년만에 우리 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폭풍우와 같은 대세의 변화를 맞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저항없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는 항상 유리하거나 편리한 체제 및 방식을 고집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70년대 한국 대기업의 종합상사맨들이 시장을 찾아 바쁘게 움직였듯이 오늘날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찾느라고 분주하다.

또 소비자들의 수요를 의식한 생산자 및 판매자들의 노고가 쉬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기쁨을 줄 수 있는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의 장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가장 효율적인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직장인들은 일터를 자의든 타의든 떠나게 되고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기업내 조직개편의 과정에서는 보호막의 완충 장치하에서 살아왔던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능률이 떨어지는 것과 오래된 것들이 능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개인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그리고 사회는 사회대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 2. 직장인의 역할과 과제

산업화사회에서는 직장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 오랫동안 혹은 정년까지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옛날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무슨 무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적 용어가 최대의 찬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능률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나게 되면 재빨리 사라질 것이다. 어느 회사 어느 직종에 있든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객감동만 하더라도 단순히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객감동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경쟁으로서 피를 말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개인의 숨겨진 재능을 한껏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 미래사회는 고객 감동을 위시하여 과거보다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정보사회는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정확히 읽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는 열의를 가진 직장인에게는 광활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당히 받아들이고 맞서려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변화는 누구의 의도나 음모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임을 직시해야 한다.

## 3. 직장인의 능력 개발

얼마전까지만 해도 과거의 것이 귀중하고 가치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 좋은 학벌이나 학위처럼 과거에 축적해 온 것들이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는 한번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시간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좋은 시절을 누리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기능이나 기술도 순식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시각각으로 자신이 가진 기량이나 기술이 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잘 적응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은 과거지향적 인간 및 조직보다는 미래지향형 인간과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

기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직장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순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량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과거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순노동을 하던 시절에는 인생 그 자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해오던 방식을 계속 하기만 하면 무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단순노동이 지식노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에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바야흐로 자기가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과거의 것에 안주하지도 않고,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지도 않고, 늘 배움을 생활화하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4. 미래대응책과 맺음말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지금, 익숙한 것과 과거의 것을 미련없이 버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에 좀더 나은 삶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및 조직은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연함이란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변화 그 자체를 즐기거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변화를 두렵고 낯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변화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려는 마음을 갖기 쉽다. 특히 육체적 나이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신이 걸어온 길로부터의 성취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

을 부리기 쉽다. 아마 그런 사람은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는 항상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나이가 많더라도 마음과 몸이 젊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체적 나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속도전으로 달려가면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일반적 현상은 직장인들이 내놓는 기량이나 기술 그리고 지식 등이 너무 빠른 속도로 못쓰게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늘 새로운 그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지만 세월이 지남과 더불어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직장이란 자신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대우를 결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보상체계가 과거에 비해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즉각적으로 혹은 탄력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기마다 스스로 주역이 되어 충실한 인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적인 면, 금전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량이 가치없는 것으로 변화해 가는 시대에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조직을 철저하게 재편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방안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올 수 있다. 비효율성, 비합리성, 비경제성 등을 하나 하나 고쳐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그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직장인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도출시킬 것이다.